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박차

남원시, 아름다운거리 조성 공모 최종 선정 총사업비 31억 확보

남원시가 '기업하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한 2024 활력 아름다운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31억원을 확보, 이를 통해 노안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근로 친화형 워터와 체육공간 △보행친화형 가로 조성 △미세먼지 측정 및 범죄 안전 스마트 시설 △공공장 노후간판 개선 △상생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노동자 복지를 통한 감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 △근로자 행복주택 분양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통근버스

등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들은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 추후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업체들의 시장관로 확대와 마케팅을 위하여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비와 글로벌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판매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기업 우수상품 발굴 및 제품 판매 촉진과 관내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시는 기업후견인제를 통해 맞춤형 기업으로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과 행정간 유대증진과 기업친화적 도시구축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력수급의 어려움에 대한 애로가 많은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소기업 및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맞춤형 투자제안 '1월 1기업

방문, 시장명의 투자서한문 및 투자제안서 발송 등으로 남원의 투자여건과 지원제도를 안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기업 방문 및 홍보에 그치지 않고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투자보조금 지급제도 개선하였고,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상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투자자문가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근 산업트렌드에 발맞추어 이차전지, 자원재활용, 데이터센터 등 유치업종의 확대와 물류시설 지원요건 완화 등을 검토중이다.

최경식 시장은 "기업의 애로해소에 힘쓰며 다양한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청년 인력을 유입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21억원 투입해 저수지 수리시설 정비

영농환경 개선·재난 대비 총력

순창군이 영농환경 개선과 여름철 집중호우, 지진 등 저수지 붕괴로 인한 각종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1억원을 투입해 영농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지보전과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중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경작 활동 편의 및 안전 영농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 순창읍 순화2 저수지 등 7개 저수지 보강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본격적인 공사에 착



수해 올해 8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저수지 보강공사 17건, 준설사업 20건을

추진하여 저수지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용수 담수량을 사전 확보하는 등 주민 영농편익에 크게 기여해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군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도비 등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저수지 보수·보강과 준설사업을 실시해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저수지 보수·보강과 준설사업은 최영일 군수가 농민들의 현장 요구를 반영해 추진하는 중점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송동면에 전용 드론 축구장 본격 운영

남원시는 4차산업 시대 드론 레저스포츠 확산을 위해 송동면에 전용 드론 축구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드론 축구장은 2021년까지 송동세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된 공공시설물 드론 축구 연습 및 경기 공간(규격 12m×6m×4m)으로 재 탄생한 곳으로, 혁신적 스포츠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새로운 취미활동을 촉진하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 조건은 남원시민 시민 누구나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 전 최소 7일 전까지 기업지원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단, 드론 축구장이 마을에 위치해 야간 경기 등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남원 항공전문대에 설치된 천문대 드론축구장(규격 8m×4m×3m)은 전문대 관람객 및 관내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

드론 축구는 현대적이고 미래 혁신적인 스포츠로 각각 선수 5명으로 구성된 2개 팀이 드론 5기를 조종해 탄소 소재로 만든 보호 장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공으로 삼아 지상에서 3m 정도에 설치된 원형 골대(지름 80cm)에 넣는 신개념 스포츠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표적인 드론스포츠인 드론축구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송동 드론 축구장은 이용객들에게 현대적이고 흥미로운 색다른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18일 장애인체육관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처음 운행하며 주민들에게 맞춤형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순창군, '농촌 왕진버스' 첫 운행

순창읍, 적성·유등면 주민 200여명 대상 맞춤 의료 서비스 '호응'

순창군은 18일 장애인체육관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처음 운행하며 주민들에게 맞춤형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군수 최영일)과 순창농협(조합장 김성철) 등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됐으며, 순창읍, 적성·유등면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사단법인 햇살마루 의료진은 침·물리치료·부항 등의 한방 진료를, 아이오바이오 의료진은 구강 검사와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참여 주민들 대상으로 시력 측정과 돋보기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왕진버스는 진료 장소인 장애인체육관까지 차량 이동을 지원

하여 평소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김성철 순창농협 조합장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른 무더위로 지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존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에 더해지는 지방비를 투입하여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운영해 의료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했다"며 "오는 7~8월에는 동계·풍산·팔덕·쌍치면 등 주민을 대상으로 2회를 추가로 운영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

임실군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에 앞장서며 청정한 지역 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재활용을 향상과 주민의 분리배출 편의 제공을 위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올해 거점배출시설 3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공동주택에는 일반적으로 분리배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단독주택 지역 중 분리배출시설이 없는 지역은 분리배출이 취약해 생활쓰레기 무단배출이 빈번히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악취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에 설치된 거점배출시설은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 분리배출할 6종과 분리배출 안내문, 불법투기 감시

CCTV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설물 청결 유지 및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위해 지역주민을 녹색지킴이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관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현황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사업 대상 후보지를 현장 답사했다.

이번 설치된 3개소를 포함 총 24개의 거점배출시설, 24개의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시 배출할 수 있어 기존 배출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크게 해소할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임실소방서는 의사소통장애가 있어도 신고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다매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18일 당부했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 상황 파악이 어려워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도 편리하게 상황 전달이 가능하다.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되며 청각장애인이거나 외국인 등에게 유용하다.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119 신고' 앱을 다운로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위치정보(GPS)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등 점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한 점검을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을 위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의뢰할 예정이며, 점검 사항은 조리장 위생 상태, 식재료 보관 기준 및 소비기한 적정 여부, 조리·제공한 식품(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 상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단순보다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위주로 식중독 예방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식중독 예방 자율점검표 배부 및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등 점검으로 식중독 예방에 이바지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